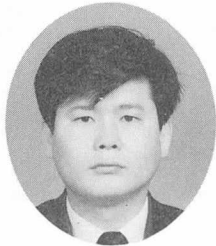


모돈의 변비 원인과 그 대책



박 봉 화
(봉화농장)

급변하는 세계화에 걸맞게 양돈업 역시 세계화되고 부가적으로 신종 질병이 만연하는 추세 속에 소홀하기 쉬운 돼지의 질병들이 있다. 그것 중의 하나가 변비이다. 사실 질병이라고 통칭하기에 무리가 있으나 변비는 그 기전을 명확히 이해해야만 치료 및 예방적 방법론을 정립할 수 있으리라 본다.

● 변비란?

흔히 변비라 함은 소화계층 및 신진대사의 부적절한 운용이나 열과 수분에 관계하여 질병에 감염된 상태에서 발견되고 형태는 정상적인 장내용물의 흐름속도가 더디어지다가 특히 대장 말단부에 직장에서 항문으로 유출되지 않는 가운데 이미 소화흡수가 완료된 장내용물이 정체되어리로 배설된다.

● 변비의 원인

원인은 식이성, 질병성, 환경성 등의 문제로 야기한다. 일반적으로 육성돈이나 비육돈보다는 특히 사료급이량을 제한하는 모돈에게서 자주 발생되며 그 중에서도 자궁내 태아가 성장을 하여 복강내 용적을 지대적으로 차지하는 임신말기에 많이 발생한다.

복강용적을 태아가 많이 차지하게되면 실제 소화흡수에 이용되어야 할 소장, 대장의 내강이 압박을 받아 사료 섭취량이 떨어지고 이로 인해 변비가 야기된다. 또한 임신 초·중기의 과비가 변비의 중요한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 이는 지방질의 과다한 축적으로 말미암아 장내 운용에 불균형을 초래하여 발견되는 예이다. 임신기를 거쳐 분만후에도 모돈의 변비는 자주 발생되는데

포유기에 발견되는 변비는 다음과 같은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

포유기의 변비원인은 다음과 같다.

- ① MMA발생시
- ② 사산발생률이 높을 때
- ③ 분만간격이 불규칙하고 분만시간이 오래갈 때
- ④ 자궁내 청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 ⑤ 부패된 사료를 섭취하게 됐을 때
- ⑥ 분만시 오는 분만열이 고온일때
- ⑦ 기타 분만사의 청결을 유지하지 못할 때 등이 있다.

● 모돈의 변비예방 및 치료

결국 변비는 돼지 일생기에 전체적으로 각종 요인에 의해 발생되는데 그 형태나 요인이 광범위하여(가령, 돈콜레라나 살모넬라에 의한 감염시에도 발견된다) 적절한 원인분석과 대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모돈의 변비는 사료의 섭취량을 인위적으로 제한을 받기때문에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는데 모돈의 개체별 특성에 중점을 두어 단순히 사료에 의한 원인으로만 발생하는 문제라고 판단하면 잘못된 생각이며 그 대책과 치료는 다음의 사항들에 역점을 두고 각자의 현명한 처지를 요한다.

□ 모돈의 변비예방 및 치료대책

- ① 과비를 막기위해 운동량을 늘린다.
(지나친 야웜도 과비를 야기하는 원인이 되므로 적절한 바디 컨디션을 유지하는게 중요하다.)
- ② 충분한 물섭취량을 늘려주기위해 니뿔의 높이를 눈높이로 올려주고 신선도를 유의한다.
- ③ 직장내 분변을 인위적으로 제거해주고 필요하면 관장도 행할 필요가 있다.

〃〃

변비는 돼지 일생기에 전체적으로 각종 요인에 의해 발생되는데 그 형태나 요인이 광범위하여(가령, 돈콜레라나 살모넬라에 의한 감염시에도 발견된다) 적절한 원인분석과 대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

④ 변비와 열은 상호 연결이 불가피하므로 발생 즉시 해열제와 항생제를 투여한다.

⑤ 대사촉진제와 소화제를 이용한다(요오드제제).

⑥ PGF_{2a}(프로스타 글라딘) 혹은 옥시토신제제 등의 호르몬 과다남용을 피한다.

⑦ 적절한 사료급이량 조절

⑧ 전해질 및 아미노산 제제를 사료에 2~3배 섞어 급여해주어도 좋다.

⑨ 청초, 알팔파, 혹은 왕겨(Wheat Bran) 등을 급여해 주어 조섬유의 함량을 높여준다.

모돈의 변비는 사실 농장관리중 비중을 낮게 두고 대하기 쉽다. 그러나 변비가 일단 발견되면 모돈의 상태를 가장 먼저 체크할 수 있는 판단이 설 수 있고 그 적절한 대책으로 말미암아 여러가지 상승 및 기대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다.

특히 분만직전후 탈장, 탈항의 구체적 요인을 방지하는 기대효과도 노릴 수 있다. 따라서 일단 변비가 발생되면 돼지의 신진대사 및 장내 활동에 비정상적인 흐름이 진행되고 있음을 간과할 줄 알아야 하며 각종 질병에 우선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